

2021년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 논문 선정 요지

2021년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김부현 박사의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상호작용과 예외적 성격』이 선정되었습니다.

남계논문상 선정위원회는 대한지리학회 부회장 진종현, 학술이사 이견학을 비롯하여 학회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양미 서울대 교수, 김영호 고려대 교수, 이재열 충북대 교수, 김민호 상명대 교수, 이종호 경상대 교수의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5월 26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최종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김부현 박사의 학위논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 논문은 서구적 자본주의의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통찰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논문입니다. 위 논문은 국가지역경계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관계적 관점의 이론과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지리학 및 지역지리학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로써, 국제관계 및 대외정책분야에서 비판지정학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하여 심사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전공 김부현의 논문 『북·중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상호작용과 예외적 성격』을 제17회 대한지리학회 남계논문상 수상논문으로 선정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남계논문상 심사위원회